

코스피	5969.64 (+123.55)	코스닥	1165.00 (+13.01)
금리 (미국 3년)	3.158 (+0.004)	환율 (원/달러)	1445.90 (+5.90)

K-방산 '빅4' 수주잔고 120조 시장 다변화 과제 04



회생의 마지막 동아줄 유암코, 해결사 나설까

흡플러스 회생절차 1년

흡플러스가 다음 달 4일 법정관리 시한 만료를 앞둔 가운데, 제3자 관리인으로 거론되는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가 해결사로 등판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자금 조달이 지지부진해 법원이 청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최후통첩을 보내자, 노동조합과 정치권은 일제히 유암코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흡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회생법원에 흡플러스 회생절차 연장과 유암코의 제3자 관리인 선임 촉구했다.

법원, 청산 가능성 등 최후통첩 민간 구조조정 기구 '유암코'에 노조·정치권, 관리인 선임 촉구

인수용 마트노조 흡플러스지부장은 "MBK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유암코와 같은 공격 성격의 전문 구조조정 기구가 관리에 참여해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책임 있는 회생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민병덕, 권향엽, 이강일 등 국회의원들 역시 MBK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1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지난 11일 대주주 MBK와 채권단, 노조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회생절차 지속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리인이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에 대해 현실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MBK 측은 기존에 약속한 1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참여하고 필요시 관리인 교체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주채권자인 메리츠금융지주는 회생계획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난이 심화하며 흡플러스 현장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 1월부터 임직원들의 임금과 상여금이 체불되거나 분할 지급되고 있으며, 거래처 납품물은 급감해 매대가 비어가고 있다. 점포 수 역시 2024년 126곳에서 이달 기준 111곳으로 줄었다. 이달에만 부산감만, 울산남구, 화성동탄점 등이 폐점 절차를 밟으며, 사측은 2027년까지 전체 점포를 102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유암코는 국내 6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기업 구조조정 전담 기구다. 과거 STX 일부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 시장의 신뢰를 잃은 흡플러스의 자금 조달 물꼬를 터줄 적임자로 꼽힌다.

업계는 유암코가 회생을 주도하더라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 자본의 단기 이익을 위한 점포 매각이나 악랄적 청산 방식이 아니라, 임금체불 최우선 해결과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태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과 인수용 마트노조 흡플러스지부장은 지난 3일 이래 2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도 변수로 작용한다. 대형마트의 배송 규제가 풀리면 흡플러스가 보유한 전국 290개 PP센터(피킹&패킹센터)가 핵심 물류 거점으로 작동해 기업 인수 매력도와 시장 경쟁력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에 나서기로 한 흡플러스 익스프레스 역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법원은 각계에서 취합된 의견을 종합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내달 4일 무렵 회생 절차 지속 또는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흡플러스 마트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유암코를 3자 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시장 정보가 나타나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5846.09)보다 123.55포인트(2.11%) 오른 5969.64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오후 장중 나란히 20만원, 100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7000원 오른 20만원에, SK하이닉스는 5만4000원 오른 100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100만닉스·20만전자 찍고 '육천피 눈앞'

코스피 2.11% 오른 5969.64 삼성 3.63%, SK 5.68% 상승

20만원, 100만5000원.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만전자' (주가 20만원)와 '100만닉스' (주가 1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코스피 또한 미국에서 날아든 글로벌 관세 10% 부과 소식과 '인공지능(AI) 발 금융위기' 공포를 떨쳐내고 '육천피(코스피 6000)'에 바짝 다가섰다. <관련기사 3·13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1% 오른 5969.64에 마감했다. 6000까지는 불과 30.36포인트를 남겨뒀다.

반도체 '투톱'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20만원(3.63% 상승)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5.68% 뚫은 100만5000원에 마감했다.

AI발 금융위기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발효 소식도 국내 반도체 투자 열기와 코스피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이는 시장

평가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시트리니 리서치'는 22일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의 산업·금융 체계와 기술 도입 과정이 '폭폭한 지능(인간)은 귀하다'는 전제 아래 운영됐는데, 이런 희귀함이 없어지고 지능 프리미엄(웃돈)이 청산되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장 재조정(repricing)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

주총 앞둔 재계, 집중투표제 검토 등 분주

삼성, 김용관 사내이사 선임 등 안전 SK, 배터리·반도체 투자 속도조절 현대차, 자율주행 등 사업목적 추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계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할 전략 구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주 설득과 기술 경쟁, 정책 변수까지 한꺼번에 겪는 가운데 기업들은 주총을 통해 경영 전략에 대한 신뢰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8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 57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구성,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안건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의 김용관 경영전략총괄의 사내이사 선임이다. 김 총괄은 메모리사업부 지원팀장, DS 부문 기획팀장에 이어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 담당임원, 사업지원TF 담당임원 등을 거쳐 2024년부터 DS 부문에서 재직 중이다. 이재용 회장 사내이사 복귀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SK그룹은 배터리·반도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다.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 일부 사업 재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계열사별 투자 계획과 재무 전략이 주총 메시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글로벌 메모리 경쟁사들을 제치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양산 출하를 최근 본격적으로 개시한 만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투자 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과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자동차 대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제조를 넘어 렌터카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모빌리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현대차그룹이 미래 투자 전략의 전동화와 로봇에 대해 어떤 사업 방향을 내놓을 지도 중요 포인트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고객사 비중 확대와 함께 소프트웨어 중심차(SDV) 및 로보틱스 분야를 신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다음달 19일 주총에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한화오션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지분 및 권리 등 양수도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컨설팅 및 용역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이 대통령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엄정 대응"...지선 앞두고 지시 /사진 뉴시스
▲진통 끝 43일 만에 중수청 확정...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

▲與,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이틀째...경기지사 후보 5명 '각축전'
▲국힘, '현지누나' 김남국 與 대변인 임명에 "인사 단장이 국정과제인가"

▲국힘 소장파 "'윤어게인'으로 지선 치를 수 있나, 의총서 투표"
▲한동훈, 25일부터 사흘간 대구 투어...재·보궐 선거 출마 관심